

[전체공지]

※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1. 성혈은 영하지 않고, 성체는 손으로 받아모십니다.
2. 평화의 인사 때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3. 성당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4. 방송미사 참례시 전례분과장에게 알립니다(전례봉사자 조정때문).
5.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음식나눔 및 행사**는 생략합니다.
6. 파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좌석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 이동할 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봉헌, 성체행렬 등).
8. 평일미사는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재개합니다.
9. 본당재정 보조를 위해 남은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개당 \$10).
10.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해 **주보를 인쇄 배부하지 않고**, 단체 카톡 방에 사진으로 공지합니다.
11. **코로나 관련 이유 전제하에 'LIVE방송미사' 참례 관면이 아직 유효하오니** 각자의 건강상태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참례바랍니다.

[잭슨빌]

1. 주일미사 참례 외에는 개인적인 성당 출입을 자제해주시고, 성체조배 등을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 **사용하신 자리를 꼭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주보 육성공지는 **총무 이토마스 형제가** 합니다(회장 대행).

[게인즈빌]

1. 주일미사를 기존 7시에서 **8시로 변경**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의 정성(3월14일-5월17일)>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무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120	\$2,260	-	마스크수입 \$500	\$2,880
잭슨빌	\$477	\$3,990	-	부활초봉헌 \$500(어인수) 감사헌금 \$500(이규순) 마스크수입 \$150 기타 \$1,742.15	\$7,636.15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904) 909-5080 성당 (904) 573 - 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공동체	
주일 미사	매주 일요일 10시30분	주일특전미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전 미사 후	-	-
성시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사 전	주일학교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저녁 7시	예비자 교리	-
사목회의	둘째 주 주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전
사목회	총무 이토마스 (904) 416-7437 /김스테파니아 (904) 613-9245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발현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체험할 거리가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보고 느낀 이들이 지금 갈릴래아의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하였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의 본디 의미는 '주저하였다'입니다.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주저합니다. 신앙이란 그런가 봅니다. 애써 노력해서 깨닫고 이해하였다 싶다가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성인이 이른바 '어두운 밤'과 '사막'을 겪었고, 또 지나왔습니다. 신앙하면서 체험하는 의심과 주저함은 신앙의 반대말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입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 의심하고 주저하다가도 다시 힘을 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 안에 늘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멋지고 잘난 이들을 선별하시어 화려한 본보기로 내세우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주저하는 이들의 나약함 안에서 당신께서 몸소 움직이시고 가르치시고자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삶에 빈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천상과 지상이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승천의 참된 의미입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주님 승천 대축일 화답송



주님 승천 대축일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답송] 시편 47(46),2-3.6-7.8-9(◎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에페소서 1,17-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5/23)	고승희 엘리사벳	이재원 엘리사	최건화 안젤라	-
	잭슨빌 (5/24)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임레지나
다 음 주	게인즈빌 (5/30)	이호석 레오폴드	정필승 사도요한	전수진 마리아	-
	잭슨빌 (5/31)	서경원 헬레나	최차숙 마리아	렉시 베로니카	함동진 안드레아 함베로니카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241	136	349	139(다른책)
잭슨빌	134	210	497	141